

태풍 뒤 큰 비… 전남 피해 ‘눈덩이’

농경지 침수, 주택·양식시설 파손에 낙과 ‘우수수’

민·관·군 복구 총력… 영산강 하류지역 홍수주의보

제 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상 양식시설과 방파제 파손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나면서 피해액을 기록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특히 민·관·군이 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위나 넓고 피해 규모도 크다. 일부 지역은 현장 접근 차단 등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9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전남에서만 주택 256개 동이 파손 또는 침수됐고 여수·순천·광양 등의 논밭 344㏊가 물에 잠겼다. 나주와 구례, 영암, 강진 등에서는 배와 단감, 무화과, 복숭아 등 낙과 피해(1090㏊)가 잇따랐고 해남·고흥·구례 등의 비닐하우스 337개 동이 파손됐다. 나주와 해남 등의 인삼재배시설 14.1㏊와 축사 3개동(1780㎡)도 피해를 입었고 순천에서는 오리 1만5000마리가 폐사했다.

공공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도로 31곳과 지방하천 12개소, 소하천 9개소를 비롯해 면사무소와 해경 관찰소 등 공공건물(3개동) 등도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해상 양식시설의 피해가 커졌다. 전북 주산지인 완도의 경우 보길도 85개 어가 해상 가두리양식장 7000여 칸이 맥없이 무너졌고 진도 의신·고군·

군매면 일대 양식장(1596칸)과 신안(16칸)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가거도 방파제 480m 가운데 250m가 완파되거나 반파됐고 방파제 보호를 위한 테트라포드 2000여 개가 한꺼번에 유실되면서 피해액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피해 규모와 면적도 위나 넓어 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이날 공무원 780명, 경찰 140명, 군인 50명 등 모

두 1200명의 인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과 침수 기록을 중심으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태풍으로 양식장 피해를 입은 완도 보길도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구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광주지방기상청이 10일에도 광주·전남 곳곳에 시간당 30~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12일까

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예보해 복구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영산강홍수통제소는 9일 오후 6시를 기해 “영산강 홍수강 유역에 내린 비로 광산구 도산동 상록교 하류(선암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영산강 하류 광주·나주지역 주민들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쓰러진 벼 세우기

전남지방경찰청 716 전투경찰대 대원들이 9일 태풍 ‘무이파’로 인해 도복 피해를 입은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들판에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거도 주민들 “방파제는 생명선… 태풍에 끄떡없게 해달라”

항구적 복구대책 호소

신안군 가거도(可居島·소흑산도) 방파제에 대한 항구적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해상에서 올라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최서남단 섬으로 ‘생명선’인 방파제가 30년에 걸쳐 완공되고도 3년 만에 붕괴된 만큼 주민들이 더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설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가거도 주민들은 지난 8일 밤 최병국(67) 가거 1구 이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방파제의 항구적인 복구

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했다. 30년에 걸쳐 지어진 방파제가 또다시 무너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뼈질しく 보강이 아닌, 확실한 방파제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가거도는 방파제 250m와 가드레일 1100m, 테트라포드 2000

개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10일 서해어업관리단측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는 시기에 맞춰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원호 신안군 가거출장소장은 “서해상을 거쳐 올라오는 태풍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태풍

으로 인한 공포감에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개량 복구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81개 국가 어항의 방파제를 높이거나 늘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용역을 진행중이며 가거도 항은 2차 용역 대상에 포함돼 지난 2월부터 관련 용역이 진행중이며 결과물은 내년 2월 나을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동·서·남·북구 10월부터 경계 조정

국무회의 통과

광주시 동·서·남·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구간 경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광주시가 신청한 동구 등 4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광주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계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동립2지구에 해당하는 북구 동립동 일부와 운암1동 일부가 서구로, ▲필문대로·독립로·갈마로를 경계로 북구 중흥동·우산동·풍향동·두암3동 일부는 동구로, ▲동구 산수1·2동 일부는 북구로 편입된다.

또 ▲남구 제석산 치마봉 자락에 위치한 남구 방립2동 일부가 동구 관

할로, ▲비거주지역으로 송원학원 부지인 서구 풍암동 일부가 남구 관할로, ▲무등경기장 주변 서구 광천동 일부가 북구 관할로 변경된다.

광주시는 올 초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 9개 지역의 경계조정안을 마련한 뒤 주민설명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6개 지역을 선정,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9일 행안부에 구간 경계조정을 신청했었다.

광주시는 11개동 2385필지의 지번이 변경되는 만큼 관계기관 통보 및 지적공부·주민등록 등 70여 개의 공부를 정리하는 등 경계조정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별 준비추진단과 시 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경계조정에 따라 동립2지구가 동천동으로 독립해 신설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코스피 장중 185P 폭락

1800선 가까스로 방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이를 연속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를 연속 사이드카와 셀프브레이커(CB)를 발동했다. 그나마 이날 밤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막판에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9.81포인트(6.44%) 내린 432.88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스타지수선물과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셀프브레이커(CB)가 내려졌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코스피 급락으로 급등세를 이어갔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60원 오른 1,088.10원으로 마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주관방송사 | CMB 광주방송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노원수산식품부, NH농협, 수협, RDA, NH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 전남지역본부

자세한 내용은
www.azim.kr

호남 농·수·축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2011. 9. 2(금) ~ 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첫째 날 9월 2일(금)
둘째 날 9월 3일(토)
셋째 날 9월 4일(일)

시·군예술단공연 | 호남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 아줌마장기자리
(속풀이발언대) | 디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예선) | 댄스경연대회(결선)
아줌마시낭송대회 | 가을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이벤트 참가자 전원 상품권 제공/입장객 매일 1천명 경품 제공]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